

Press Release

유네스코, 최빈국의 40%가 코로나 19 로 인해 위험에 빠진 학습자 지원에 실패했음을 밝히며 교육에서의 형평성(inclusion) 촉구

6.23. 프랑스 파리 - 유네스코의 2020 년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포용과 교육 - 모두는 모든 이를 의미한다’)에 따르면, 교육에서의 완전한 포용(inclusion)을 보장하는 법을 가진 국가는 10% 미만이다.

이 보고서는 배경, 신분, 능력(성별, 거주지, 재산, 장애, 민족, 언어, 이주, 강제 이주, 성적 지향, 감금, 종교, 신념, 태도)등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서 나타난 학습자 배제의 주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배제가 악화되었으며, 중하위 소득 국가의 약 40%가 임시 휴학 기간 동안 소외 계층 학습자들을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회복력 있고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각 국가가 등교 재개 이후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우리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 포용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절실하다"며, "심화된 불평등의 문제를 재조명한 코로나 19 대유행을 통해 교육의 미래에 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배제: 올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교육 목표 달성에 관한 209 개국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발간된 네 번째 연례 보고서다.

보고서는 2 억 5 천 8 백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빈곤을 주요 장애물로 지적한다.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는 가장 부유한 20% 가구의 청소년들이 가장 빈곤한 가구의 청소년들보다 중학교 졸업률이 세 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가장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가장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기초적인 독해력과 수학 능력을 갖추 가능성은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 년까지 보편적인 중등교육 보장이 목표로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 여 개 국의 가난한 시골의 젊은 여성들이 중등교육을 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들 대부분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교육을 받은 중·고소득 국가의 10 세 학생들은 독해 시험에서 원어민보다 34% 낮은 점수를 받았다. 중·저소득 10 개국에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최소 독해 수준을 달성할 확률이 1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성 소수자(LGBTI)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학교를 쉬었다고 말할 가능성이 거의 세 배 높았다.

불공평한 토대: 출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GEM)팀은 교육 참여에 관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새로운 웹사이트 PEER 를 개설했다.

PEER 는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편견, 차별과 소외를 심화하는 교육 분리(segregation)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분의 1 에 해당하는 국가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40% 이상)가 별도 환경에서의 교육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노골적 배제: 아프리카의 두 나라는 여전히 임신한 여자아이의 학교생활을 금지하고 있고, 117 개국은 아동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20 개국은 아직 아동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비준하지 못했다.

몇몇 중부와 동유럽 국가들에서 로마족(Roma) 아이들은 주류 학교에서 분리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로힝야족과 같은 실항민들이 병렬 교육 방식으로 교육받았다. OECD 국가에서는 이민자 출신 학생의 3 분의 2 이상이 이민자가 전체 학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낮아졌다.

마노스 안토니니스 국장은 "코로나 19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했다"며, " 다양성을 중시하고 환영하는 세계로 이동하는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 지붕 아래(under the same roof) 모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 간 긴장감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부모들의 차별적 신념이 포용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 학부모의 15%, 홍콩 학부모의 59%가 장애아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할 것을 우려했다. 취약계층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녀들의 웰빙을 보장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는 특수학교 학생의 37%가 주류 교육기관에서 이탈했다.

이 보고서는 교육 시스템이 종종 학습자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세계 41 개국만이 수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습자들을 위한 지원보다 인터넷 연결성 확보를 더욱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3 억 3,500 만 명의 여학생들이 기본적인 월경 위생 관리가 부족한 초등 및 중등학교에 다닌다.

학습자 소외: 학습자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자신이 부적절하게 대표된다고 느낄 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중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글과 이미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44%, 방글라데시가 37%,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이 24%였다. 유럽 49 개국 중 23 개국의 교육과정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프랑스어권 10 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 10 명 중 1 명도 안 되는 교사들이 포용적 교육에 관한 직무 연수를 받았다. 48 개국의 교사 중 4 분의 1 은 특수교육 관련 직무 연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부족: 거의 절반의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는 장애아동에 대한 충분한 교육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가구 조사는 교육 데이터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데 핵심적이거나, 세계 인구의 13%가 거주하는 국가 중 41%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에 관한 수치는 대부분 학교에서 수집된 것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안토니니스는 "불충분한 데이터는 우리가 전체 사진의 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코로나 19 를 통해 갑자기 드러난 불평등은 놀랄 일이 아니다." 고 말했다.

포용으로의 진전 징후: 세계 현황 보고서와 PEER 웹사이트는 많은 나라들이 포용을 향한 전환에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말라위, 쿠바, 우크라이나의 경우, 학교를 위한 자원 센터를 설치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류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비아, 뉴질랜드, 사모아는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 사례도 있다. 인도의 오디샤 주는 교실에서 21 개의 부족 언어를 사용한다. 케냐에서는 유목민 달력에 맞춰 교과과정을 조정했으며, 호주의 경우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교사들이 19% 학생들의 교과과정을 조정한 사례도 있다.

자세한 정보는 Kate Redman k.redman@unesco.org
+ 33(0)671786234 에 연락.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발행하는 독립적인 연간 발행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4(교육)의 이행현황을 모니터링 한다.

6.23. 부터 아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PEER 웹사이트 접근 가능

- <https://www.education-profiles.org>
- Username: team
- Password: gemprofiles246!